

해남군 - 고려대 사범대학 작은학교 교육봉사 업무협약 체결

고려대 사범대 재학생과 중학생 1:1 온라인 학습지도

두륜중학교·화산중학교 선정...새학기부터 운영 예정

해남군과 고려대 사범대학은 지역 작은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봉사단을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군은 고려대 사범대학, 해남교육지원청, 한국새농민중앙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교육봉사단 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해남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김성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조영천 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국새농민중앙회 김안석 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고려대사범대학은 재학생으

로 구성된 교육봉사단(KEAM, Korea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Academic Mentors)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학기 중 월 4회(회당 1시간씩) 온라인으로 국어·영어·수학을 비롯한 교과목을 1:1로 학습지도할 계획이며, 멘토링을 통해 멘티들에게 학습 방법 및 전략, 상담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방학 중에는 1박 2일의 대면 멘토링을 통해 온라인 만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감을 통해 멘티-멘토간의 돈독함을 다질 수 있는 기

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면지역 작은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추천받아 두륜중학교와 화산중학교를 선정했다.

김성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은 "지역인재 육성과 작은 학교 교육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사범대 재학생에게도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교육의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가구가 점점 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려대학교의 교육봉사단 운영은 땅끝의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학업 성취 동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봉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봉사 지원

2023. 2. 17.(금) 14:00 해남군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한국사



(왼쪽부터) 조영천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명현관 해남군수, 김성일 고려대 사범대학장,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



장흥군, '소통과 화합' 군민과의 대화 마무리

김성 군수 "문화·관광·예술·스포츠 르네상스 시대 개막할 것"

장흥군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10개 읍·면에서 진행된 '2023년 군민과의 대화'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민과의 대화는 올해 추진하는 군정 주요사업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지역민의 제안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군수가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역사·관광 콘텐츠 개발방안, 바이오산업 운영현황, 각종 비전호시실 인기에 대한 대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의 제시했다.

군은 건의된 사항에 대해 즉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검토 및 제1회 추경 반영 등 군정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군민과의 대화에 앞서서는 최근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첫날에는 장흥군 홍보대사인 김성한 前 기아타이거즈 감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 장흥군수는 "군민과 소통하며 지역이 나아갈 방향과 개선해야 할 현안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장흥군 문화·관광·예술·스포츠 르네상스 시대를 개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농촌 소통전문가 기초과정 개강

소통 역량 강화로 민주도 마을공동체 활력 기대

강진군은 지난 20일, 강진커뮤니티센터에서 '농촌 소통전문가(퍼실리테이터) 기초과정' 개강식을 열었다.

강진군농산어촌활성화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교육생 37명을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총4회 총 16시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인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 한선미 강사가 맡았다.

퍼실리테이션의 유형, 퍼실리테이터의 이해, 회의 설계 실습, 회의 기법 실습, 미래 설계형 실습, 현안문제 도출, 대안 발굴, 실행계획 세우기,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기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귀농·귀촌 증가로 주민

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늘어나며, 이를 위한 원활한 토론과 소통의 리더십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은 강진군 지역 리더와 주민들의 소통 역량을 강화해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식 센터장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 발굴부터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실행까지의 역량을 키우는 의미있는 교육과정"이라며 "교육을 통해 마을 발전을 이끄는 소통 전문가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역량 강화 돕는다'

연 최대 10만 원 지원...3월부터 매월 1~10일 접수

완도군이 청년 구직자들의 자립 기반 형성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올해 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둔 19세~49세 미취업 청년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어학(8종), 한국사, 국가 자격증(국가 기술 자격증, 국가 전문 자격증)을 실제로 응시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당해 연도에 한 해 최대 2회 가능하며, 실제 결제한 응시료 비용을 1인당 합산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응시료 지원 시험은 ▲어학 8종(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아이엘츠, 오픽, 텡스, 지텔프, 플렉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국가 기술 자

격증 ▲국가 전문 자격증이 해당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후 구비 서류를 지참해 3월부터 매월 1~10일에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방문하거나 이메일(ksm01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 확인 후 신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거쳐 신청 다음 달 10일경 응시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된 자라 하더라도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군정정보-행정정보-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농수특산물 브랜드화 포장재·택배비 7억원 지원

진도군이 농수특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7억 원을 투입, 농수특산물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한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어업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작목반, 어촌계 등 단체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종이박스, 플라스틱 용기, 파우치 등 포장재 제작·구매액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 택배비 지원은 관내에서 직접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단체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택배비 1건당 8,000원 이내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이며,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농수산유통팀(540-1133).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